

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변강의 확장: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을 중심으로

장영덕 ■ 인하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외교의 '주변'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주변외교의 범위가 확장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아울러 주변 범위의 확장이 중국 변강(frontier)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외교에서 주변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주변의 범위가 대주변으로 확장하면서 주변외교의 공세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범위의 확장은 곧 중국의 영향력 투사 범위가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중국의 변강이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아시아는 대주변의 핵심지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중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며, 민족적·종교적으로 유사한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신장지역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는 중국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주제어: 주변외교, 대주변, 변강, 시진핑, 일대일로

I. 서 론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외교의 '주변'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주변외교의 범위가 확장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아울러 주변 범위의 확장이 중국 변강(边疆, frontier)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을 통해 주장한다.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E-mail: jangyd@inha.ac.kr)

주변외교는 강대국 외교(大国外交), 개발도상국 외교(发展中国家外交), 다자외교(多边外交)와 함께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시진핑 집권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12년 열린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주변외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고, 2013년 10월에는 신중국 성립 이후 최초로 ‘주변외교업무좌담회(周边外交工作座谈会)’를 개최하였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주변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으며, 주변외교의 전략적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라고 강조하였다.¹⁾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 중국은 왜 주변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기초한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외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 중국은 육상을 기준으로 14개국과 직접 맞닿아 있고, 이들 국가와 약 22,0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다. 해상의 경우 동남아시아 6개국과 마주보고 있어 중국은 육·해상에 걸쳐 모두 20개 국가와 인접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주변국이 가장 많은 국가로써 과거부터 주변지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1962년 중·인전쟁, 1969년 중·소 진보도 사건, 1979년 중·월전쟁 등 주변국가의 무력충돌 경험이 있으며, 인도와는 2017년과 2020년 도클람(Doklam, 중국명: 등랑(洞朗)) 지역과 라다크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해상에서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대만,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Vasquez에 따르면 1816년~1980년 사이 발생한 국가간 전쟁의 88%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Vasquez 2009). 중국은 지속적인 굴기를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예로부터 주변 관리를 중시하였고, 지금도 주변외교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

최근 미·중관계가 격화함에 따라 중국의 주변외교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중 경쟁 및 갈등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의 주변지역, 즉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으

1) 新华网, “习近平在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发表重要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3-10/25/c_117878897.htm (2021/09/15 검색).

2)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주변의 안정을 매우 중시했는데 조공(朝貢)과 책봉(册封)이 주변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예이다.

로 규정하였다.³⁾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변경하려는 현상타파 세력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국제질서를 흔들 유일한 나라로 중국을 지목하는 한편 동맹 및 우방들과 함께 중국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과의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⁴⁾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적 지원, 백신외교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외교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주변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다수의 연구가 중국의 외교정책 중 강대국 관계, 즉 미·중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외교정책으로서 주변외교가 갖는 위상과 의미, 주변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이 주를 이룬다(윤영덕 2006; 서정경·원동욱 2014; 김택연 2016; 이기현 외 2015; 서정경 2016; Michael D. Swaine 2018). 이들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 주변외교의 특징과 주변국 및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하지만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주변외교의 확장성과 중국의 대주변 전략에 대한 논문도 일부 존재한다(Yu lei 2016; Mendez·Alden 2019). 이들 연구는 주변의 범위가 대주변(大周边)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호주와 파나마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대주변(grand periphery)' 개념을 직접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udrye Wong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중앙의 주변외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윈난성(云南省)과 하이난성(海南省)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Wong 2018). Wong의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들의 여러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주변외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2021/09/22 검색).

4) 2021년 5월 17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7월 각의에 보고할 2021년도 방위백서 초안에 대만 정세의 안정이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18/106988484/1> 2021/09/20 검색).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서아시아 정책을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가 '주변'에서 '대주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영향력 투사의 범위로써 중국의 변강이 확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해 II장에서 중국 주변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주변 개념이 언제 등장하였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확인한다. III장에서는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서아시아가 왜 중요한지 파악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서아시아 지역이 중국의 대주변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주변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II. 중국의 주변외교와 프런티어(frontier)

1. 주변외교 범위의 확장

중국의 공식문서에 '주변(周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이다.⁵⁾ 정부공작보고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외교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문서로 '주변'이라는 단어가 해당 보고에 등장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주변'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보고는 "중국은 줄곧 주변 각국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해 왔다(中国一向重视同周边各国保持和发展睦邻关系)"며 주변국 관계의 중요성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주변'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1999년 '주변외교(周边外交)'라는 단어가 학계에 처음 등장하면서 '주변'은 외교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특히 2011년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 '주변외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면서 주변외교는 중국 외교노선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⁶⁾

중국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과거부터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중국의 체제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보면 마오쩌둥(毛泽东) 시기에는 건국 초기 국내 정치

5) 中央政府门户网站. "1988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865.htm (2021/11/28 검색).

6) 中央政府门户网站. "2011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test/2011-03/15/content_1825270.htm (2021/11/28 검색).

적 안정을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이 필요했다(杨会清 2014).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1978년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해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주변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강조하였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안정이 필요하였다(邢伟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주변 인식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국내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이 빠르게 부상함에 따라 장쩌민(江泽民)과 후진타오(胡锦涛) 시기의 주변 인식은 과도기적 성격을 보인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제한적이지만 국제사무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3년 중국의 부상이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면서 중국 지도부의 주변 인식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다. 과거에는 국내적 요인에 의해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면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었고, 주변은 중국의 대외관계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시진핑 또한 과거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邢怀高 2019). 대표적으로 2013년 10월, 중국은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를 핵심 주제로 하는 '주변외교업무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시진핑은 또한 "주변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周边对我国具有极为重要的战略意义)"고 강조하였다.⁷⁾ 과거 중국 외교의 핵심이 강대국 관계에 있었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주변외교가 중국 외교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표 1〉 주변국, 주변, 대주변의 구분

구분	국가 및 지역
주변국	육상(14개국)과 해상(6개국)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국가들
주변	주변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역,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대주변	주변 + 서아시아와 남태평양지역

이러한 관점에서 '대주변' 개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가 중국 외교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주변' 개념이 '대주변'이라는

7) 新华网. "习近平在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发表重要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3-10/25/c_117878897.htm (2021/09/12 검색).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주변에는 러시아, 몽골,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가 포함된다. 즉, 중국을 기준으로 육상 및 해상에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지역이 곧 주변이다. ‘대주변’은 기존의 ‘주변’이 포함하는 지리적 범위를 초월한다. 대주변은 기존의 주변에 더해 중국과 육상 및 해상에서 동일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주변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기존의 주변으로 분류되는 지역과 함께 서아시아와 남태평양지역을 포괄한다. 사실 대주변 개념은 시진핑 시기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지만 중국위협론의 확산과 맞물려 주목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비교적 확장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주변이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강대국임을 자인하지 않았고, 2008년 이후에는 ‘G2’로 불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이 대주변 개념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1)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2) 중국의 이익 범위 역시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호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이후 22일부터 피지, 사모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지역의 도서 국가들을 국빈 방문하였다. 당시 방문에 대해 중국공산당신문(中国共产党新闻)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의 거리를 좁혔고, 이로써 중국의 대주변 외교가 점차 완성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⁸⁾ 중국 내 대표적인 주변외교 전문가인 치화이가오(祁怀高)는 서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안보, 변강안정, 서부발전 등 중국 서부 지역의 전략적 확장을 위해 중요하고, 남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확보와 해상 안보 등 중국 동부의 전략적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 주장한다(祁怀高 2014). 또 다른 전문가인 천상양(陈向阳)은 대주변에 포함되는 지역은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영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주변 전략을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주변외교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陈向阳 2010).

2. 프런티어로서의 변강, 그리고 변강의 확장

‘변강(边疆)’의 사전적 의미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경(边境)’이라

8) 中国共产党新闻. “钟声: 中国大周边外交开新局.” <http://cpc.people.com.cn/pinglun/n/2014/1124/c78779-26080445.html> (2021/09/23 검색).

는 단어와 동일하며,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의 땅'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변강이라는 단어에는 변두리의 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강지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변강이란 국가를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국경(国境)'과는 다르다. 변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는 'borderland', 'frontier' 등이 있으며, 이중 'frontier'에는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땅이라는 물리적 의미 외에 '개척지', '(지식·활동영역의) 한계', '미지의 영역'이라는 비교적 추상적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강의 '프런티어(frontier)적' 의미에 주목한다. 즉, 변강의 물리적 의미를 넘어 '개척지', '한계', '미지의 영역' 등 변강에 내재된 추상적 의미를 강조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대주변의 경우 서아시아, 남태평양 등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개척이 필요한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으로 충분한 의도를 수반한 침략과 영토적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프런티어로서의 변강은 한 국가의 영토를 초월한다. 특히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가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화',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토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변강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문화¹⁰⁾를 포함하여 중화사상을 알리기 위해 세계 도처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¹¹⁾ 공자학원은 중국 문화 전파의 최전방 기지이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새로운 차원의 변강이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변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프런티어로서의 변강은 물리적 의미를 넘어 가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확장적 개념이다(장영덕 2020).

터너(Frederick, J. Turner)는 19세기 후반 프런티어 개념을 하나의 가설(frontier thesis)로 정립한 미국의 역사학자이다. 그는 1893년 미국 역사학회에서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서부 개척을 통한 미국 영토의 확장으로 "미국 역사상 첫 개척의

9) 예컨대 중국과 인도의 경우처럼 국가 간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영토의 변경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는 의도를 수반한 영토적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胡一凡·陈丽华(2021)는 공자학원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를 물질(物质)문화, 행위(行为)문화, 정신(精神)문화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1) 현재 공자학원(孔子学院)은 전 세계 162개국에서 550개가 운영중이며, 공자학원과 함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자학당(孔子学堂)도 1,172개가 운영중이다(<https://www.cief.org.cn/> 2021/09/24 검색).

시기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에는 더 이상의 프런티어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 대륙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¹²⁾ 터너는 미국의 끊임없는 확장과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 그리고 카리브해 및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였다(Tuner 2014). 서부 개척 이전 미국의 프런티어가 서부 지역이었다면 개척 이후의 프런티어는 영토 밖 새로운 개척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터너는 또한 미국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서부, 즉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터너의 이론은 ‘Frontier Thesis’로 정립되었고, *The Frontier in America History*의 출판을 통해 더욱 체계화 된다.¹³⁾

III.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과 특징

1. 서아시아의 중요성과 중국의 전략

2016년 1월,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으로 서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선택하였다. 지도자의 해외 순방이 갖는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고려하면 시진핑의 서아시아 순방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서아시아 지역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서아시아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20여 개 국가로 구성되며, 지리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¹⁴⁾ 동서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는 시나이 반도 동쪽과 터키부터 파키스탄에 이르고, 남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북으로는 조지아의 캅카

12) 박인규. “미국, ‘제2의 서부’ 동아시아로 진격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1648#0DKU> (2021/09/25 검색).

13) 중국에서 터너의 이론은 ‘변강학설(边疆学说)’ 혹은 ‘변강가설(边疆假说)’로 사용되며, 변강의 확장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활동변강(活动边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4) ‘서아시아(West Asia)’, ‘중동(Middle East)’의 구분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매우 모호하다. 이는 서아시아 또는 중동 지역의 경계가 외부인의 관점과 목적, 의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구기연·황의현 2021). 일반적으로 중동은 서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가 포함된 범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의 중동 전략은 큰 틀에서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다.

스 산맥까지에 이른다. 서아시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을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 인종과 민족이 혼재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동과 서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 동서 양단의 수송망을 연결하는 교통과 운송의 요충지이다. 서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민족과 종교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서아시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서아시아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때문이다. 지구의 '오일뱅크'로 불리는 서아시아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 및 생산되고 있지만 석유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서아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다.

서아시아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은 서아시아를 주변외교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 경제, 안보 영역에서의 이익 확장과 정치 및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郭锐·樊丛维 2016).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도권을 두고 미·중 간 경쟁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서아시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1) 서아시아의 풍부한 석유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2) 일대일로 추진 이후 서아시아가 중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건설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며, 3) 중국의 주요 상품시장이기 때문이다. 석유의 경우 중국은 2020년 약 5억 4천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상위 열 개 수입국 중 다섯 개 국가가 서아시아 국가들이었으며, 전체 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하였다.¹⁵⁾ 중국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원유 순수입국으로서 원유 확보에 대해 매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충분한 원유의 확보가 곧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며, 이는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몽(中国梦)'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프라 건설 역시 중국과 서아시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3년 일대일로가 시작된 이후 인프라 건설은 중국과 서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었다. 서아시아는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낙후한 지역으로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서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정보통신 분야 등 대부분의 영역

15) 원유 수입국 중 상위 열 개 국은 수입 규모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브라질, 앙골라,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국, 노르웨이이다(本刊 2021).

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⁶⁾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건설이 서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¹⁷⁾ 서아시아는 또한 중국의 새로운 상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인 5억 여 명에 이르며, 이 중 50%에 가까운 인구가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다.¹⁸⁾ 수출입 구조상 서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산업 외에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업을 비롯한 기타 산업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趙雅婧·王有鑫 2016). 현재 중국은 공업 완제품을 비롯하여 가전제품, 의료기기, 컴퓨터, 경공업 제품, 철물공구, 완구, 공예품 등을 서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데 향후 일대일로를 통한 시장 확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서아시아는 또한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개 경제회랑 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中国-中亚-西亚经济走廊)’은 중국 신장(新疆)을 출발하여 페르시아만, 지중해 연안,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서아시아 지역을 포함한다.¹⁹⁾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아시아 지역은 가장 중요 에너지 수출처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풍부하지만 반대로 정치, 군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문제가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서아시아 지역의 이슬람국가(ISIS) 활동은 역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테러의 위협은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위협 요인이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와 서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불안요소들은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송, 중국 기업의 서아시아 진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石艳芳·师若文 2020).

2. 미·중관계와 중국의 서진(西进) 전략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초점

16)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P2?locations=YE&view=chart> (2021/09/25 검색).

17) 人民网. “中国在西亚直接投资发展潜力巨大.” <https://baijiahao.baidu.com/s?id=1645713126241692316&wfr=spider&for=pc> (2021/09/27 검색).

18) 雨果网. “中东市场的发展现状和机遇.” <https://baijiahao.baidu.com/s?id=1652182392558271347&wfr=spider&for=pc> (2021/09/28 검색).

19) ‘6개 경제회랑(六大经济走廊)’은 1) 중국·몽골·러시아아경제회랑(中蒙俄经济走廊), 2)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中国-中亚-西亚经济走廊), 3) 신유라시아대륙교량(新亚欧大陆桥), 4)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中巴经济走廊), 5)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孟中印缅经济走廊), 6) 중국·중남반도경제회랑(中国-中南半岛经济走廊)을 가리킨다.

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서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한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미·중관계의 양상이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관계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아시아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하나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 우위를 지켜왔다. 1980년 1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페르시아만의 유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후 서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놓치지 않았다(Hal Brands et al. 2019).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 선언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서아시아 정세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이란, 이스라엘 등 영향력 있는 역내 행위자들이 있지만 미국은 지역 정세를 견인하며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란 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중국이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먼저 2004년 1월, 중국은 아랍연맹과 <중국-아랍협력포럼(中阿合作论坛)>을 개최함으로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²⁰⁾ 본 포럼은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 아랍 국가들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까지 총 9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²¹⁾ 2010년 6월에는 <걸프협력회의

20) <중국-아랍협력포럼>에 참여중인 아랍 국가들은 모두 22개국이며, 이 중 서아시아 국가들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쿠웨이트, 레바논, 예멘, 시리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 외 아랍 국가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중국이 아랍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 서아시아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서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 기제 역시 중국의 서아시아 전략에 포함시킨다.

21) 中阿合作论坛. “关于论坛.” http://www.chinaarabcf.org/chn/gylt/200903/t20090306_6566932.htm (2021/10/01 검색).

(Gulf Cooperation Council, GCC)>와²²⁾ 정치적 측면에서 상호협력과 상호신뢰를 강조하며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제1차중국-걸프협력회의전략대화(中国-海合会首轮战略对话)>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제1회 중국-아랍경제무역포럼(宁洽会暨首届中阿经贸论坛)>을 Ningxia(宁夏)회족자치구의 성도 인촨(银川)에서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중국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Ningxia회족자치구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급 종합박람회이다.²³⁾ 아울러 2018년부터는 <중국-아랍국가발전개혁포럼(中国-阿拉伯国家改革发展论坛)>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중국 정부는 <중국의대아랍국가정책문건(中国对阿拉伯国家政策文件)>을 발표하며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 하였고, 문건 발표 직후 시진핑이 2016년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을 선택하면서 서아시아의 중요성을 공식화 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서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서아시아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투자는 더욱 적극적이다. 이에 서아시아 지역이 미·중 간 지역 주도권 경쟁을 위한 무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Pant 2020).

미국의 대 중국 견제도 중국의 서아시아 진출을 추동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였고, 2019년 발간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는 현상타파 국가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 동맹관계 및 인도와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 필리핀 등 다른 안보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주변국인 인도와 일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Garver & Wang 2010).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4월,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求是)>는 “제1, 제2 도련선을 넘지 못하면 해양강국이 되기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서진(西进)’ 전략을 제시하였다(纪明葵 2014). 서쪽에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비

22) 걸프협력회의(GCC)는 페르시아 만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된다.

23) 2012년 제3회 포럼 이후 명칭을 <중국-아랍국가박람회(中国-阿拉伯国家博览会)>로 바꾸었고, 개칭 이후 2019년까지 네 번의 박람회를 개최하였다(<https://www.caseth.org/ljblh/> 2021/10/01 검색).

못하여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지정학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IV. 대주변으로서의 서아시아와 변강의 확장

1. 중국의 주변으로 편입되고 있는 서아시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주변외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미·중갈등의 격화로 중국의 주변지역이 미·중 간 영향력 투사의 현장으로 부상하자 중국의 주변외교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주변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연구 성과의 양적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논문검색 사이트인 CNKI 검색결과 2000년 이후 제목에 ‘주변외교’가 포함된 총 339편으로 이중 약 77%인 260편이 2013년 이후에 출판되었다.²⁴⁾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중국주변학(中国周边学)’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李文 2018; 钟飞腾 2018; 奚培凤 2018; 石源华 2020). 중국 내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인 옌쉐통(阎学通) 칭화대학 교수 역시 중국의 외교에서 주변이 미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⁵⁾

이러한 배경 아래 대주변 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주변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중국의 부상과 함께 등장하였지만 비교적 공세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대주변 개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중국의 이익 범위 역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서아시아는 남태평양 지역과 함께 중국의 대주변외교에 포함되는 핵심지역이다. 치화이가오는 서아시아 지역은 중국 서부 주변의 전략적 확장 지역으로 에너지 안보, 변강안정, 서부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귀루이와 판충웨이 또한 서아시아는 중국 대주변의 중요한 구성지역이자 새로운

24) 학위논문의 경우 2000년 이후 출판된 30편의 논문 중 80%인 24편이 2013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서아시아(西亚)’ 관련 논문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cnki.net를 기준으로 제목에 서아시아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2000~2010년 3,590편, 2011~2020년 4,821편이 출판되었다(www.cnki.net/ 2021/11/28 검색).

25) 阎学通. “阎学通: 整体的“周边”比美国更重要.”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mjGCFY> (2021/10/03 검색).

형태의 주변관계를 구축하는 데 새로운 축이자 거점이고, 특히 미국과의 경쟁에서 최전방 진지라고 주장하였다(郭锐·樊丛维 2016). Ehteshami와 Horesh(2018)는 2016년 이후 중국 지도부가 중동까지 중국의 주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서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자신의 영향력 범위, 즉 '대주변'에 두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아시아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상술한 <중국-아랍협력포럼>, <중국-걸프협력회의전략대화>, <중국-아랍국가박람회>, <중국-아랍국가발전개혁포럼> 등 다양한 대화와 협력의 기제를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중국은 이러한 기제를 통해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자 한다.

<표 2> 중국의 대 아랍정책 문건의 정책영역과 내용

영역	내용
정치	고위층 교류, 정부 간 협상과 협력기제, 입법기구·정당·지방정부 간 교류, 국제사무협력, 대만문제
투자 및 무역	일대일로, 생산설비협력, 투자협력, 무역, 에너지협력, 인프라건설, 항공우주협력, 민용핵 협력, 금융협력, 경제무역 협력기제와 플랫폼 건설
사회발전	의료와 위생, 교육 및 인력자원 개발, 과학기술협력, 농업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입업협력
인문교류	문명과 종교교류, 문화·방송·텔레비전·영화·신문출판·싱크탱크 영역의 협력, 민간교류와 청년 및 부녀자 교류, 관광협력
평화와 안보	지역안보, 군사협력, 반테러협력, 영사·이민·사법·경찰협력, 비전통안보협력

※ 출처: 中国对阿拉伯国家政策文件(全文),

http://www.gov.cn/xinwen/2016-01/13/content_5032647.htm를 바탕으로 편집

2016년 1월 발표한 <중국의대아랍국가정책문건(이하 '문건')>은 중국의 아랍정책이 구체화된 문건으로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문건>을 보면 중국의 대 아랍 정책은 크게 정치, 투자 및 무역, 사회발전, 인문교류, 평화와 안보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표 2>과 같이 중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방식으로 서아시아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하여 '1+2+3 협력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1+2+3 협력방식'이

란,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위해 에너지협력을 주축으로 하고(1), 인프라 건설과 무역투자 편리화를 두 날개로 삼으며(2), 핵에너지·항공우주·위성·대체 에너지를 돌파구(3)로 삼는다는 것으로 중국은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핵심 목표와 함께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1월,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 국가들과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52개의 협력을 체결하였다.²⁶⁾

금융부분에서의 접근도 주목할 만하다. <문건>을 보면 중국은 “중앙은행 간의 통화 협력 강화를 통한 자국 화폐의 결제 확대, 용자보험 지원 증대, 국제 금융기구와의 조화 강화, 국제 금융시스템의 보완 및 개혁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대표성 제고” 등을 강조한다. 실제로 중국은 2012년과 2014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상호 무역보장을 위한 35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카타르 도하에 위안화 결제센터를 설립해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郭锐·樊丛维 2017). 역내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도전하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중국은 또한 아랍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제도적 틀에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며 코로나19 백신 공동 생산을 합의하는 등 백신외교를 추진하면서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문건>에서 밝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아시아 지역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이 서아시아 지역을 중국의 ‘주변’으로 편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주변의 확장과 중국 영향력 범위의 확대

천상양은 대주변은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주변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주변외교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변외교의 외연 확장은 중국이 설정한 주변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26) 中国新闻网. “王毅谈习近平主席访问沙特、埃及、伊朗和东盟总部.” <https://www.china-news.com.cn/gn/2016/01-24/7730117.shtml> (2021/10/03 검색).

을 의미하고, 중국의 주변이 넓어진다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범위가 그만큼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이 서부개척 이후 태평양 너머의 프런티어를 개척했던 것처럼 중국도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서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프런티어를 개척하려고 한다. 특히 2013년 일대일로를 제시한 이후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주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과 국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영향력 투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영역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도광양희가 중국 외교의 행태를 대표했다면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는 ‘뚫뚫핍인(咄咄逼人)’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노선은 ‘유소작위(有所作为)’, ‘대유작위(大有作为)’와 비교하여 더욱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행태를 표현하기 위해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국력과 자신감 증대에 힘입어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창하고 실천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탈냉전기 국제질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김재철 2020).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을 통해 국제질서에 충격을 주었고, 양국은 경제와 기술에서의 극심한 경쟁을 경험하였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 요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곧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강화시킨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반 중국 연대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바이든 시기 미·중관계는 경제 영역을 넘어 군사와 안보 영역에서의 갈등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중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중국은 이를 위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경쟁관계가 격화하면서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심해질수록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과 대응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 및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Tellis 2020). 서아시아 역시 미·중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미·중 양국은 서아시아의 정치, 종교, 에너지 등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이처럼 중국의 영향력 범위가 확장함에 따라 미·중 간 영향력의 범위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 국내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서아시아 지역이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민족과 종교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다(Scobell 2016). 2021년 4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 계획을 밝힌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안보에 무임승차했던 중국은 테러를 비롯하여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신장위구르는 중국 내 대표적인 이슬람 지역이자 분리독립 의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의 존재이다. ETIM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중국과의 무장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는 ETIM이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일으킨 무장공격과 2016년 키르기스스탄 주재 중국대사관 폭탄 테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Feng 2021). 중국은 이슬람권인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이용하여 민족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이들 국가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터키의 경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Zan 2013).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신장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이를 위해 유리한 외교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신장지역의 인권탄압 문제는 중국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⁷⁾ 중국은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이용하여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의 신장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서아시아 지역의 역할을 기대한다. <문건>의 정치영역에는 서아시아 지역과 상관없는 대만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건>에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아랍국가 및 지역조직과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중국은 아랍국가 및 지역조직이 오랜 기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왔고, 대만과는 공식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정부차원의 왕래를 하지 않고, 양안관계의 평

27) Global Times. “China needs to fight a creative opinion battle on Xinjiang: Global Times editorial.”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003.shtml> (2021/10/11 검색).

화발전과 중국의 통일대업을 지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며 대만문제에 대해 아랍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하나이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외교환경을 조성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일대일로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이다. 서아시아 지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아시아는 6개 경제회랑 중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아시아에 도달하는 회랑에 포함되며, 중국은 서아시아를 거점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서아시아와의 안정적인 연계성(Connectivity)이 확보되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닝샤대학(宁夏大学) 아랍연구원 원장인 리샤오셴(李绍先)은 “현재 아랍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예로써 일대일로 추진 이후 서아시아에 대한 FDI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²⁸⁾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서아시아 지역은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전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adsher 2021). 중국은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을 제한하였고, 이는 중국의 전력난으로 이어졌다. 전력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에너지 안보는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변수이다. 이에 중국은 서아시아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란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란은 중국을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외교적 지지자로 인식한다(Green & Roth 2021).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5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체결하였고, 2019년에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28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의를 체결하였다(游賽夫 2021). 이처럼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함은 향후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8) 红星新闻. “一带一路’建设如何与西亚北非加强合作, 专家这样说.” <https://baijiahao.baidu.com/s?id=1632245857986555872&wfr=spider&for=pc> (2021/10/11 검색).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은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서아시아와 중국을 잇는 요충지로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월 23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각종 단독 제재 또는 제한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금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²⁹⁾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와칸회랑(The Wakhan Corridor)은 서아시아로 가기 위한 주요 통로로 중국의 일대일로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am Dunning 2021).

V. 결 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부상이 더욱 본격화 하면서 중국의 주변외교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를 주제로 하는 ‘주변외교 업무좌담회’가 개최되면서 주변외교는 중국 외교의 핵심 사안이 되었다. 중국의 주변외교는 단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변외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변화이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하였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힘을 받지 못했던 대주변 개념이 시진핑 집권 이후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주변은 기존의 주변에서 서아시아와 남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국은 대주변 개념을 통해 주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확장은 중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범위가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변강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아시아는 동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고, 남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북으로는 조지아의 캅카스 산맥까지에 이른다.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이 맞닿은 곳이며, 역사적으로 문명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지구의 동과 서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연결하는 교통과 운송의 핵심 요충지이다. 지정학적으로는 민족과 종교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국제정치 차원의 의미로서도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서아시아의 석유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은 2020년 약 5

29) 조준형. “중국 ‘아프간 경제제재 중단해야... 해외자산 동결안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3150000083?%20input=1195m> (2021/10/04 검색).

억 4천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상위 다섯 국가가 서아시아 국가들이었고,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서아시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서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대주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서아시아를 주변외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서아시아를 중국의 주변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서아시아를 주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미·중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현재 미·중 간 경쟁 및 갈등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투사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 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제3 세계를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백신외교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외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외교 행태는 '전랑외교'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 상호 견제를 위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양국의 영향력 범위는 지구 각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며, 서아시아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 지역이 될 것이다.

둘째, 서아시아는 중국 국내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아시아는 신장지역과 민족적,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중국은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신장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터키의 경우 위구르족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어 서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신장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중국 지지는 신장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셋째,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서아시아는 매우 중요하다. 서아시아는 전략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 중국은 서아시아를 거점으로 유럽,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아시아와의 안정적인 연계성이 확보되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육상실크로드의 안정적인 유지 및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 최종 기착지를 유럽과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서아시아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넷째,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서아시아는 중요하다. 최근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으며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전력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안정적인 에너지의 수급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은 서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예컨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입장에서 이란은 중국을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중요한 경제적, 외교적 지지자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역사결의(resolution on history)’를 채택하였다. 대내외 많은 매체들이 역사결의 채택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도한다. 또한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기 채택되었던 역사결의와 비교하며 시진핑이 이번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현재 공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외교행태가 유지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주변이 대주변으로 확장한 것처럼 대주변이 포괄하는 지역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범위가 더욱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변강의 범위 또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구기연, 황의현. 2021. “타자화를 넘어선 서아시아 지역 정체성 형성의 여정: 이란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1(2), 97-122.
- 김재철. 2020. “수용과 충격: 중국의 부상과 자유주의 세계질서.” 『한국과 국제정치』 36(1), 153-183.
- 김택연. 2016.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亞洲新安全觀)과 동북아 주변외교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1(2), 5-26.
- 서정경. 2016.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주변외교의 발현: 對 중앙아시아 인식 및 정책.” 『국제정치논총』 56(3), 129-163.
- _____, 원동욱. 2014.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영남국제정치학회보』 17(2), 115-132.
- 윤영덕. 2006.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22(3), 1-41.
-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2014.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 장영덕. 2020. “중국의 변강(邊疆)인식 전환과 확장적 대외정책.” 『국제정치논총』 60(4), 257-291.

중문 자료

- 本刊. 2021. “2020年中国原油进口54238.6万吨.” 『合成润滑材料』 第1期, 19.
- 陈向阳. 2010. “应对‘大周边’六板块.” 『瞭望』 第34期, 59.
- 丁工. 2017. “试论云南在中国‘大周边’战略中的地位和作用.” 『印度洋经济体研究』 第1期, 108-119.
- 矣培凤. 2018. “创建“中国周边学”的机遇与挑战.” 『世界知识』 第8辑, 22-24.
- 邢伟. 2019. “邓小平国家利益观与周边外交.” 『中共石家庄市委党校学报』 21(3), 29-33.
- 胡一凡, 陈丽华. 2021. “中国文化对外传播现状与创新对策研究—以孔子学院为例.” 『文化创新比较研究』 5(7), 174-176.
- 郭锐, 樊丛维. 2016. “西亚地区乱局与中国的西亚外交政策调整.” 『中国周边外交学刊』 第1期, 142-161.

- 李文. 2018. ““中国周边学”的学科定位、研究视角与重点领域.” 『中国周边外交学刊』 第1辑, 15-20.
- 祁怀高. 2014. “构建面向未来十年的‘大周边外交战略’.” 『世界知识』 第4期, 20-21.
- _____. 2019. “新中国70年周边多边外交的历程、特点与挑战.” 『世界经济与政治』 第6期, 43-64.
- 祁怀高, 石源华. 2015. “中国周边安全六大挑战与大周边外交战略.” 『中国社会科学院 国际研究学部集刊』 第1期, 265-292.
- 石艳芳, 师若文. 2020. ““一带一路”沿线国家恐怖主义风险研究.” 『河南警察学院学报』 第3期, 18-27.
- 石源华. 2020. “中国周边学: 70年历史总结和新时代理论创新.” 『世界知识』 第3期, 14-15.
- 孙现朴. 2016. ““一带一路’与大周边外交格局的重塑.” 『云南社会科学』 第3期, 1-6.
- 杨会清. 2014. “建国初期毛泽东的周边外交战略.” 『湖南第一师范学院学报』 14(5), 1-4.
- 赵雅婧, 王有鑫. 2016. ““一带一路’背景下中国与中东的经济合作.” 『阿拉伯世界研究』 第2期, 31-43.
- 游赛夫. 2021. ““进博会”－抓住中国与沙特阿拉伯经贸投资新机遇.” 『现代商业』 第3期, 62-64
- 钟飞腾. 2018. ““中国周边学”研究的新契机与新方向.” 『世界知识』 第8期, 24-25.

영문 자료

- Ehteshami, Anoushiravan and Niv Horesh ed. 2018. *China's Presence in the Middle East: The Implications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New York: Routledge.
- Garver, John W. and Fei-ling Wang. 2010. “China's Anti Encirclement Struggle.” *Asian Security* 6(3), 238-261.
- Green, Will and Taylore Roth. 2021. “China-Iran Relations: A Limited but Enduring Strategic Partnership.”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1-31.
- Mendez, Alvaro and Chris Alden. 2019. “China in Panama: From Peripheral Diplomacy to Grand Strategy.” *Geopolitics* 26(3), 1-23.

- Scobell, Andrew and Alireza Nader. 2016. *China in the Middle East: The Wary Dragon*. Santa Monica: RAND.
- Swaine, Michael D. 2014.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44, 1-43.
- Tellis, Ashley J. ed. 2020. *Strategic Asia 2020: U.S.-China Competition for Global Influenc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eattle.
- Tuner, Frederick J. 2014.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Eastford: Martino Fine Books.
- Vasquez., John A. 2009. *The War Puzzle Revisit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ng, Audrye. 2018. "More than Peripheral: How Provinces Influence China's Foreign Policy." *The China Quarterly* 235, 735-757.
- Yu, Lei. 2016. "China-Australi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context of China's grand peripheral diplomac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9(2), 740-760.

Abstract

Evolution of China's Periphery Diplomacy and Expansion of Frontier: Focusing on China's West Asia Strategy

Youngduk Jang ■ Inha University

This paper, by investigating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periphery' of China's diplomacy, attempts to analyze China's Peripheral Diplomacy is expanding. At the same time, it argues that the expansion of the periphery will lead to the expansion of China's frontier. Since Xi Jinping took power, peripheral diplomacy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China's diplomacy. In particular, with the expansion of the 'periphery' to the 'grand periphery', China's diplomacy has increasingly turned aggressive. The expansion of the 'periphery' means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projection, which shows that China's frontier is expanding. As a key region, West Asia has an important meaning. China wants to occupy an advantage in China-U.S. relations by expanding its influence and seeking stability in Xinjiang through friendly relations with West Asian countries with similar nationalities and religions. In addition, West Asia is recognized as a key region for the success of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an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gion for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Periphery Diplomacy, Grand Periphery, Xi Jinping, BRI

